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형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쨌든 응대해 드립니다. 삼의 고백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지>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마음에서 비롯된 것 마음으로 해결해야

자살하려는 의식의 정체

문 사회가 물질만능의식의 팽배로 인해 보이는 물질만을 추구하다 보니 정신세계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개척하고 극복하기보다는 포기하고 회피하려는 생각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 자살하려고 하는 의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리고 자살은 전생의 입력된 경험 때문에 이 생에서 또 하게 되는지요. 가르침 바랍니다.

답 사람들은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이 몸은 생명의 근본, 즉 불성의 집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불성과 영혼은 다른 것입니다. 심봉을 끼고 수레가 돌듯이 생사윤회 일체가 심봉을 끼고 돌아가는데 심봉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능력을 배출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심봉이 불성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못 쓰면 그 바뀌어 나쁜 게 감기고, 또 좋게 마음을 쓴다면 선의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입력이 되는 것을 바로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혼백(魂魄)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근본 불성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우리 몸 속에는 의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모습과 의식, 생명이 세포 하나 하나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벌써 마음으로 관하면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바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구조도 너무나 질서정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좋은 일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차원이 높아지기도 하고 차원이 낮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력이 된 대로 차례 차례로 그 시기가 되면 자꾸 발산이 되는 거죠. '난 죽어야 한다'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인과성 세균성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우리 몸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의식이 자꾸 총동원됩니다.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총동원을 하니 상대성의 핑계가 돼 가지고는 그냥 순간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육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즉 말하자면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큰 일이 앞에 닥쳤을 때 자기가 덮고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허탈하게 떨어져서 허탈할 때 일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모든 일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는 해결책도 마음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성과 주인공의 의미

문 돌 아닌 가르침에 항상 감사 드리며 질문 올립니다. '영원한 나를 찾아서'란 책을 보면 '본래 불성(佛性)은 부동하여 움직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중심 주인공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 마음의 중심 주인공'은 무엇인지요.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의 중심 주인공이 불성인 줄 알았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불성이라는 것은 근본을 말하는 거구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내는 거와 불성을 통합한 겁니다. 우리를 몸과 오장육부가 있는데 모든 세포에 전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운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것을 내 주처에서 다 운행하는 거죠. 운행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행 거든 조절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대로 주인이 되는 거죠.

업식 나오는 자리에 되놓으면 번뇌망상·생사윤회 모두 녹아

항상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근본처, 주처가 바로 누구냐? 이게 도대체 무엇이나 이리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모든 걸 책정해서 아는 그 능이 컴퓨터처럼 전체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오관을 통해서 컴퓨터처럼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탐지기 역할도, 또 텔레파시도, 통신도, 무전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싫은 것 좋은 것, 내가 일하고 말하고 하는 것, 하루 24시간 걸어진 것을 저녁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고뇌가 그렇게 하면서도 벌써 여러 가지 한 걸 다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알고 있는 고뇌가 바로 주인공이자,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입니다. 내 몸이 부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몰락 놔 버리라고 했습니다. 네 주처에서 24시간동안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왔지 않느냐? 주처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왔지 않느냐? 행을 하고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억급 전전서부터 나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가 바로 내 조상이자 바로 자부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끌어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주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또 마음의 주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뜻만 알면 되죠. 이 모든 것을 억급 전전서부터 해 내려온 게 바로 주처에서 했다는 것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생명수와 같은 자기 에너지가 하나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전체 다

있으니 만큼 에너지는 차이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용(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내세울 게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픈 것도 딱 치고 넘어가면 그냥 성해지고, 성한 것도 만약에 걸리면 아픈 거고, 이렇게 자기가 쓰는(用) 대로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생명을 호흡시켜서 공생(共生)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생을 하고 있으면 또 공심(公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차만별로 돼 있는 공심은 바로 공생의 능력으로서 다양하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진리이자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 하면 전체 공생으로서 한데 합쳐진 거를 말합니다. 그 공생으로 한데 합쳐지니까 그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공기가 없어서 못 살죠.

이 드리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말로 해서 여러분이 듣는다면 주인공에게다가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공에서 나오는 일

나 천(天·지(地)·인(人)이 질서있게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건 취하면 안 된다, 된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의례의식이나 모든 절차 계율 같은 것은 이미 아시리라 믿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내가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러니까 내 뜻으로 돌리면서, 내 뜻으로 돌리게 되면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의리와 도의를 절대로 허탈하게 생각을 안하게 됩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항상 자기 뜻으로 돌리면서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이음해서 제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면에 자기 자신성을 세우고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공에서 안팎으로 살펴볼 때 나쁘게 생각이 되고 나쁘게 딱치고 이러한 것은 나쁘게 나오게 하는 것도 너무나 좋게 돌려서 나



그림 · 최주현

부드러운 행동·말 하면서
항상 자기 뜻으로 돌리고
감사함 느끼며 돌아가면 계항
깊은 내면세계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정향

그런 거는 오래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부처님의 법을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가르치는 스님들한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셋째는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모든 게 자기 탓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좋았든지, 나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생기는 상대성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 뜻으로 돌려야죠. 모든 거는 내 뜻으로 돌려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왔지만 부딪침도 있고 상대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우주도 벌어졌습니다. 그

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가 되 놔야 합니다. 반면에 안에서 좋은 마음은 생각하고 바깥에서도 좋은 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럴 때 감사하게 놓습니다. 깊은 내면세계를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끌어 정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항 정향만 잘 해도 우리가 향을 피워 놓고 초 켜놓고 아무리 빌어봤던들 바깥으로만 찾아 공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진짜로 나를 이끌어가고 진짜로 나를 이익하게 하고 업보를 타파하고 과거의 모든 번뇌망상 생사윤회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수좌 스님

이 동짓날 팔죽을 쑤다가 팔죽방울이 풀어서 올라오니가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뚱이가 팔죽 솔이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팔죽 솔에서 팔죽방울이 나오는 거지 판 데서 올라오고 판 데서 뺏어 가고 이러한 게 아닙니다. 망상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속지 말고 그냥 놓으라는 거죠. 미리 '이것도 팔죽 솔에서 나오는구나' 하고 락 놓아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몸 속에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가 되놓으면 바로 번뇌와 망상, 생사, 윤회 모든 것을 타파하는 겁니다. 녹이는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헌 쇠든지, 새 쇠든지 넣으면 다 녹아서 새로 재성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 작업만 한다면 쇠는 녹아서 저절로 생선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말까 이런 거추장한 생각을 마시고 진실히 믿고, 용광로에 쇠를 넣듯이 구정들이 나올 때 맑은 물로 바꿔서 써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것을 잘 다스려서 유위의 질서도 지켜나가고 보이지 않는 업의 굴레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참 사람으로 사는 본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인공을 찾는 쉬운 방법

문 저는 근심스럽고 괴로운 모든 생각을 교회의 목사님 말씀에 의하고 성경에 의해 하느님에게 다 맡기라고 그래서 한없이 맡겨 봤는데 끝내는 그 고민이나 괴로움이 저에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아는 분으로부터 스님의 책을 받아서 읽어보니가 그런 전부 나한테 달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스님 한번 뵈고 말씀도 들어 보고 주인공을 어떻게 찾는 건지 가장 빨리 찾는 쉬운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 불교에서는 자성불이 진짜 자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자동차라면 차 속에 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바로 자성불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는 자기의 소관이지 판 데 누가 나의 차를 고쳐주거나 씻어주거나 닦아주거나 이런 법이 없다 이거예요. 가든 모든 내 소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 소관이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네 종교 내 종교 이라고 모두 이름이 틀리고 수행 방법이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그래요. 그전에 나도 가톨릭에 좀 다녀 봤죠. 근데 내가 아무리 잘 못해도 자기가 그걸 풀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님한테 다 고하고는 자기는 입 속 육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네가 그렇게 해 놓은 거는 네가 해결해라. 네가 해결하되 너라는 몸뚱이를 가진 그 모습이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으니가 너를 끌고 다니는 참 네가 해결하도록 맡겨라.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니까 거기다 믿고 맡겨라.'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깨달은 분들을 보면 '동자야, 울지 마라. 내가 있잖나. 아픔도 나와 풀이 아니요, 모습도 나와 풀이 아니요, 또는 생명도 풀이 아니요, 생김 생김' 18면으로 계속

가짜본 안목을 밝히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역시이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